

#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일본·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허남춘\*\*

< 차례 >

- I. 서론
- II. 국토형성과 창조 여신
- III. 거녀(巨女)의 의미
- IV. 여성신의 변모
- V. 결론

## 국문요약

제주에는 창세신화가 여러 심방들의 무가 속에 남아 있다. <천지왕본풀이>가 대표적인데, 창세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설문대할망 설화도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의 국토를 형성한 이야기로 거구의 여신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며, 엄청난 양을 배설하고, 큰 옷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설문대할망은 거대한 몸으로 국토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거대한 몸으로 하늘을 들어 올려 세상을 만든 창세신과 대비된다. 단순하게 지형을 형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신화체계를 본다면 천지분리와 국토생성은 모두 창세신화의 반열에 든다고 하겠다. 지형전설처럼 보이는 설화에도 섬과 오름의 창조 모티프가 담겨 있어 원래 설문대할망 설화가 지니고 있었던 창세신화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의 창세신화와 비교하여 설문대할망 설화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 교수

지닌 창세신화적 면모를 찾았다. 중국 여와와 무리우자 여신과 대비를 통해 설문대할망이 하늘과 땅을 바느질하여 창조한 여신과 동격임을 밝혔다. 거인의 배설물과 편력에 의해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다이다라봇치' 거인설화와 유사하여, 논문의 중심에 한국과 일본의 거인 모티프에 담긴 창세신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원시와 고대의 신화가 고대 남성 중심의 신화체제로 재편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화에는 여성 신화가 빈약한 편이다. 그런데 만 년 전부터 오천 년 전까지 모계중심사회가 전개될 당시의 신화체계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는 여성 신화가 풍부하다. 그 여주인공들의 활약 앞에 거대하고 강력한 여신 설문대할망이 있었다.

이런 여성신이 역사적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모하는 과정도 살펴본다. 첫째, 여성 중심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여성영웅은 사라지거나 죽고 남성영웅이 등장하는 현상을 찾았다. 둘째, 여성 창세신이 남성 배우자를 만나고 남성신의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고 이어서 아이를 낳는 어머니 여성신의 면모가 드러난다. 셋째, 거대신이 거인신으로 바뀌고 거인으로 바뀐 후 인간 크기와 비슷한 신으로 점점 왜소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야생적이고 반인반수의 신이 점차 부드럽고 자애로운 여성으로 변모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성신 이야기는 왜소해지고 파편화하면서 전설로 바뀌는 경로를 따라간다. 그래서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된다.

주제어 : 설문대할망, 거인, 다이다라봇치, 무리우자, 오백장군, 대식(大食), 여성성, 창세, 국토형성

## I. 서론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이 형성된 배경을 말해주는 설화로, 제주 전도에 걸쳐 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야기 구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남아 있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는 이야기다. 천지창조 뒤에 나타나는 지형형성의 신화로 볼 수 있으며, 남성신화가 나타나기 전의 여성신화이다. 대단한 생산력을 지닌 여성신으로서의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따듯한 인간애를 드러내는 신화이면서 제주인의 소망을 담은 미래지향적 이야기라 하겠다.<sup>1)</sup>

설문대할망과 마고할미, 중국의 여와, 북유럽 신화의 이미르(Yimir), 바빌로니아 신화의 티아마트(Tiamat) 등은 모두 거구의 창세신들이다. 원시 인류는 최고의 능력을 지닌 대모신격(大母神格)을 그 능력에 걸맞은 거구의 형상으로서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크다’는 것은 실제적인 ‘크다’의 의미를 초월한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므로, 최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sup>2)</sup> 이처럼 몸집이 크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설문대할망의 실체를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설문대할망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성신화가 지닌 특성을 살피면서, 특히 일본과 중국 소수민족의 신화와 비교를 통해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설문대할망 설화<sup>3)</sup>는 우선 거녀(巨女)의 이미지를 지닌 여성신의 예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sup>4)</sup> 잘 알려진 것으로는 우선 설문대할망이 앞치마

1) 설문대할망 설화 자료는 다음을 참조했다. 김영돈·현용준·현길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임석재 편(1992),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 편, 제주도편』, 평민사; 진성기(1968), 『남국의 전설』(개정판), 일지사; 진성기(1978), 『남국의 전설』(중보판), 학문사;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2) 송정화(2007), 『중국여성연구』, 민음사, 66쪽.

3) 이 글에서 ‘설문대할망 설화’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신화적 특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지만, 지금 남겨진 것들은 지명 유래와 연관된 전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을 아우르는 설화란 용어를 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화가 전설로 이행해 간 단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은 신화들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창세의 모티프가 있어 주변 신화와의 대비를 통하여 비로소 그 면모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에 흠을 퍼 담아 나르다가 구멍이 뚫어진 곳에서 흠이 새어나와 그것들이 360여 개의 오름이 되었고, 마지막 흠을 날라다 부은 곳이 한라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다음 설문대할망은 오백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을 먹이기 위해 죽을 쑤다가 죽에 빠져 죽었고,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아들들은 모두 죽어 한라산 영실의 오백장군 바위가 되었다는 창조성과 다산성을 지닌 이야기다. 그리고 거구인 할망이 배가 고파 음부로 사슴 열 마리와 멧돼지 일곱 마리를 잡아 포식하였다거나, 할망이 음부로 고기를 잡아먹었다는 대식성과 다산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의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거대한 여성신의 죽음은 힘에 의해 지배되는 남성신 중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빚어진 패배라고 해석된다. 여성 중심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설화가 백두산에 전해지고 있고, 마고할미가 물러난 뒤 단군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여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단군에 관한 기록신화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마고할미 설화는 바로 설문대할망 설화의 변이과정을 추적하게 해 주는 좋은 단서가 된다.<sup>5)</sup> 영웅서사시에서는 여성 영웅서사시가

4) 설문대는 선문대, 설명두, 세명뒤 할망, 洗麻姑, 沙曼頭姑라고도 한다. 巨女신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권태효(1998),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에 자세하다.

5) 마고할미 설화는 다음과 같다. 단군이 거느리는 박달족이 마고할미가 족장으로 있는 인근 마고성의 마고족을 공격했다. 전투에 진 마고할미는 달아나서 박달족과 단군족장의 동태를 살피는데, 알고 보니 자기 부족에게 너무도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고할미는 단군에게 심복하게 되었고, 단군은 마고할미의 신하인 아홉 장수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극진히 대접했다. 그 아홉 손님을 맞아 대접한 곳을 구빈(九賓) 마을이라 하고 마고할미가 단군에 복속하기 위해 고성으로 되돌아오며 넘은 고개를 왕림(枉臨)고개라 한다는 것이다(1997. 7. 4. 중앙일보).

먼저 나타나고 남성 영웅서사시가 뒤를 이었다.<sup>6)</sup>

제주의 지형을 형성한 거대한 여신 설문대할망은 죽음으로 끝나고 이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로만 전한다. 신화적 상상력은 대부분 제거되었고,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방대한 제주 서사무가 속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sup>7)</sup> 대지신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땅과 관련된 설문대할망의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땅·물·달·농경·여성' 등에 관련된 상징체계의 의미를 중시해야 한다.<sup>8)</sup> 지금 남겨진 설문대할망 설화 속에 내장된 여성 신화의 이미지를 찾아내 그 상징성을 해명하고, 아울러 주변 신화와 대비를 통해서 제주 설문대할망의 위상을 재조명하게 된다면 애초에 지녔던 창세신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계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6) 이는 고대국가 형성기에 천신을 자처한 남성 정복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애초 여성 영웅과 남성영웅은 대등하였으나, “남성영웅과 여성영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대립이 해소되었는데, 그 자식은 딸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여성영웅과 남성영웅이 병립하던 시대는 가고 남성영웅 독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65쪽).

7) 앞의 마고할미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전역에서 여성신화가 물러나고 남성신화가 등장한다. 고대국가 건설기 즈음까지 남아 있던 유화나 선도성모에 관한 이야기는 농경과 관련된 대지신으로서의 주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가 소거당하고 만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건국신화 속에는 태초의 여신들이 고대국가 건국주의 어머니로서, 신모(神母) 혹은 곡모(穀母)라 불리며 남아 있는데, 제주에는 그런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서사무가 본풀이 속에서 설문대할망의 상징성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8)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47-149쪽 참조.

## II. 국토형성과 창조여신

설문대할망 설화는 왜 창조신화의 반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작 '전설'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전승의 근원적 의미는 별반 관심이 없는 편이다. 오랜 전승의 과정에서 변이되는 요소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미흡하고, 일부 변모현상에 대해서는 조작설까지 보태져 있다. 그 원형적 의미는 창조신화일까. 그것을 규명해내면 전승과정의 변이 현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화의 전설화에 담긴 맥락도 조금씩 해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본고는 우선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파편화된 설화의 원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 그 원형적인 신화소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 신성성을 잃게 되었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이 변한 것인지 밝혀 보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설문대할망 설화가 창조신화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지형형성'에서 찾고 있다.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거나 우도를 분리시켰다는 내용을 두고 지형 형성 설화라 했고, 이것은 천지창조 신화의 파편화라고 추정한다.

일본 연구자들에게도 이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야시(大林太良)를 대표 편자로 만든 『세계신화사전』에서 조선반도 신화를 소개하면서 '천지창조신화' 항목을 제일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천지분리신화, 복수의 해와 달, 국토생성' 세 가지 분류를 두었다. 천지분리신화에는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초감제와 함경도의 창세가, 복수의 해와 달에는 두 개의 해를 영웅이 해결하는 생인굿과 도술가, 국토생성에는 거인과 떠오는 섬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국토생성' 모티프는 일본신화의 '국생신화(國生神話)'와 같은 반열에서 보았던 것 같다. '국토생성설화'

에는 첫째, 거인의 배설물과 편력에 의해 산천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일본의 '다이다라봇치(だいだらぼっち)'와 흡사한 것이라 했다. 둘째, 떠오르는 섬 전설인데 표류·이동하는 섬이 빨래하는 여자의 행동에 의해 멈췄다는 유형으로 일본의 '국토 끌기(國曳き神話)'와 유사하다고 했다.<sup>9)</sup> 첫째의 유형이 바로 설문대할망 설화와 같은 거너 설화이고, 둘째 유형은 비양도 전설과 같은 '움직이고 멈추는 섬' 설화다.

한편 여신신앙을 연구한 노무라 신이치는 초창기 여신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그 첫머리에 '천지를 창조한 여신(天地お創る女神)'을 두었는데, 여기서 설문대할망을 포함하여 마고할미와 개양할미를 소개하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고 눕는 거대한 여신으로서 제주도의 오름을 만든 여신이라고 요약하고 있다.<sup>10)</sup> 마고할미는 바윗들로 산성을 쌓거나 다리를 놓는 행위를 하고, 높은 산정 바위에서 소변을 보아 일어난 일이 부기되어 있다. 개양할미는 나막신을 신고 서해를 건너를 건너면서 수심을 재고, 그것을 어부들에게 알려주어 풍랑을 방지하게 해 준다는 수호신격이다. 개양할미에는 창조여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한라산을 베고 눕는 거너라는 모티프와,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모티프가 국토 생성의 창조신이라는 규정에 흡족한 증거라 할 수 있을까.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고 우도를 가라놓았다는 것은 지형 형성 설화의 반열에 든다고 하겠으나, 국토 생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느껴진다.

창조의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거나 하늘과 땅의 분리에 크게 관여했고, 거대한 자신의 몸에서 자연 만물이 생성한다는

9) 大林太良 外(1994), 『世界神話事典』, 角川書店, 352-353쪽.

10) 野村伸一 編(2004), 『東アジアの女神信仰と女性生活』, 慶應義塾大學出版會, 7-9쪽.

화생(化生) 모티프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천지창조 신화 혹은 창세신화라고 하여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들이다. 혹은 파탄 난 세상을 수습하여 하늘과 땅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신화도 이에 속한다. 태초에 우주를 연 창세 여신은 아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세상을 복원하였던 점에서 창세신화의 반열에서 논할 만하다.

아득한 옛날, 사극이 망가지고 구주의 땅이 갈라졌다. 하늘이 무너져 대지를 완벽하게 덮을 수 없었고 땅도 망가져 모든 사물을 다 제대로 실을 수 없었다. 불길이 타올라 사그라지지 않고 물은 차올라 쉼이 없었다. 동물들이 착한 백성들을 잡아먹었고 무서운 새들이 노약자를 채 갔다. 이에 여와는 오색 돌을 녹여 푸른 하늘을 보수했고, 거북의 다리를 잘라 사극을 메웠으며 …… 네모난 땅을 등에 지고 둥근 하늘을 품에 안았다.<sup>11)</sup>

여와는 오색 돌을 녹여 하늘을 보수하는 여와보천(女媧補天)을 행하는데, 이런 창세의 이야기가 중국 남부의 소수민족 신화에 많다고 소개한 김선자 교수는 “중국 남부지역에 전승되는 신화 속의 창세여신들은 모두가 바느질을 해서 서로 다른 하늘과 땅의 크기를 맞추고 있다.”<sup>12)</sup>고 했다. 그렇다면 그 바느질 모티프는 어떤 것인가.

(무리우자가) 하늘을 다 만들고 보니 땅이 하늘보다 넓었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지 못하자 땅의 가장자리를 바느질하여 실을 잡아당겨 땅을 줄였

11) 往古之時，四極廢，九州裂，天不兼覆，地不周載，火熾炎而不滅，水浩洋而不息，猛獸食頽民，鸞鳥擾老弱。於是女媧鍊五色石以補蒼天，斷鯀足以立四極，殺黑龍以濟冀州，積蘆灰以止淫水，蒼天補，四極正，淫水涸，冀州平，蛟蟲死，頽民生，背方州，抱圓天(淮南子，覽冥訓)。

12) 김선자(2010), 「중국의 여신과 여신신앙」, 『동아시아 여성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여대출판부, 146쪽.

고, 마침내 하늘이 땅을 다 덮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땅은 평평하지 못했다. 그때 튀어나온 곳이 산이 되었고, 움푹 들어간 곳이 강과 바다가 되었다.

미뤄터가 하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땅보다 작아 땅을 다 덮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과 바늘을 가져다가 하늘과 땅의 가장자리를 꿰맨 뒤 실을 잡아당겼더니 하늘은 솔뚜껑처럼 되었고, 땅은 주름치마처럼 되었다. 땅에 주름이 잡히는 바람에 산과 골짜기가 생기기는 했지만 하늘과 땅의 크기는 똑같아졌다.<sup>13)</sup>

장족의 무리우자나 야오족의 미뤄터는 같은 창조 여신이다. 바느질로 하늘과 땅의 크기를 맞추었는데, 그 결과 산과 계곡이 생겨났다고 한다. 설문대할망이 손으로 굽은 곳은 계곡이 되고 퍼담은 곳은 산이 되었다는 모티프와 유사하다. 그런데 바느질 이야기는 별도로 전한다. 그것이 '성산 일출봉 등경돌 이야기'다. 일출봉을 오르는 중턱에 있는 등경돌 위에 각시불을 얹어놓고 거기서 바느질을 했다고 한다. 할망의 바느질은 단순히 의복을 손질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가장자리를 꿰매는 창조의 여신으로서의 역할과 연관된 듯하지만 증거는 미약하다. 바느질과 염색과 직조술은 여신의 영역이다.<sup>14)</sup>

땅 위에는 당연히 산과 계곡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흙을 운반하거나 땅을 헤집는 것이었을 듯하다. 국조신(國祖神)이 인

13) 김선자(2009),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쿠스, 387쪽, 432쪽.

14) 『삼국유사』를 보면 선도성모가 조복을 직접 짓고 있다. 선도성모는 혁거세의 어머니 신격으로 부기된다. 가야의 허황옥은 비단류를 가지고 도래한다. 염색은 특권층의 권리였다. 일본 와키하루메노미코토란 여신은 아마테라스의 신성한 하타노노(機殿)에서 신에게 바치는 옷을 짜는 직능을 갖는다. 애초에는 설문대할망이 바느질로 하늘과 땅을 이어놓았고, 그런 과정에서 산과 계곡이 생겼다는 전승이 있었을 텐데, 바느질만 남고 나머지 행위는 잊혀졌다. 그리고 흙을 운반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논리적으로 부기된 것이라 추정된다.

간세상을 만드는 아이누의 신화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상천신(上天神)들이 상천(上天)에 모여서 ‘내려가서 인간국토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국조신이 당느릅나무 껍이와 우목(叉木, 끝을 뾰족하게 하여 땅을 파는 도구)을 만들어서 내려왔다. 강이 흐를 만한 곳을 손가락으로 굽고 손톱으로 파서 만들고, 계곡 등도 손톱으로 굽고 손으로 파내어 만들었다.”<sup>15)</sup>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이 상상력으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에 직면했을 때, 거인 창조신이 흙을 운반하였다거나 흙을 헤집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손쉬웠을 것이고, 창조 여신의 주특기인 바느질로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다음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아이누에게 있어서도 땅을 만든 신은 초목의 일에서 나무를 벗겨 옷을 만드는 일을 가르쳤다고 한다.<sup>16)</sup> 여기서 땅을 만든 신은 어떤 신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대지도 신일 것이고,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직조술과 바느질을 포함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땅을 만드는 행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중국 광시 장족에게 무리우자는 인간을 창조하고 그 운명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황량한 대지에 잡초뿐이었는데, 그 땅에 꽃이 피고 꽃 속에서 여신 무리우자가 탄생하였다. 여신은 꽃을 기르며 살았는데 그 꽃이 인간세상의 영혼이 되었다. 천상의 꽃밭에서 붉은 꽃을 보내면 여아가 태어나고 하얀 꽃을 보내면 남아가 탄생한다. 여신이 꽃밭에 물을 주고 잘 돌봐주면 인간세상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물이 부족하고 꽃에 벌레가 생기면 아이들이 병에 걸린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꽃이 되어 천상의 꽃밭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sup>17)</sup>

15) 更科原藏(2000), 이경애 역, 『아이누신화』, 역락, 12쪽.

16) 更科原藏(2000), 이경애 역, 『아이누신화』, 8쪽.

창조의 여신 무리우자는 꽃 할망(花婆)이라 불린다고 한다. 제주도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천꽃밭과 이를 주재하는 할망과 너무 유사하다. 아이를 점지하는 방식도 같고, 꽃밭을 생명의 근원으로 혹은 영혼이 돌아가는 곳으로 사유하는 점도 같다. 삼승할망이 하얀 꽃을 보내면 남아가, 붉은 꽃을 보내면 여아가 태어난다는 점도 같고, 아이가 15세가 안 되어 죽으면 다시 꽃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설문대할망 설화에는 인간을 창조하고 운명을 주재하는 이야기가 없다. 그런 기능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애초 창세신에게 그런 능력이 부가되어 있었는데 시간을 내려오면서 그 기능들이 여러 신격으로 나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탄생을 주재하는 능력은 삼승할망이, 운명을 주재하는 능력은 가문장아가, 풍요를 주재하는 능력은 자청비가 나누어 관장하는 신화적 틀을 갖게 되었다. 제주에 다양한 여신들이 두루두루 있게 된 연유다. 그 기저에는 인간사고의 변모가 깔려 있다. 산처럼 큰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점점 거대한 몸집의 설문대할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신들은 인간의 몸집과 비슷한 크기의 존재로 조정되었으며, 창세신의 다양한 능력은 여러 여성신에게 나뉘어졌고, 그 다음 여성의 강한 능력에 대치하여 남성의 강한 능력이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창세의 여신은 전설 속의 인물로 바뀌게 된다.

### Ⅲ. 거녀(巨女)의 의미

설문대할망 설화는 우선 거녀(巨女)의 이미지를 지닌 여성신의 예피

17) 김선자(2009),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386-389쪽.

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대는 선문대, 설명두, 세명뒤 할망, 선마고(詵麻姑), 사만두고(沙曼頭姑)라고도 한다. 설문대할망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설문대할망의 특징은 대의(大衣), 대식(大食), 대근(大根), 배설(排泄), 거구(巨軀) 등으로 요약된다.<sup>18)</sup> 이런 거인의 특성은 '다이다라봇치'라는 일본의 거인 설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 설화는 일찍이 야나기타와 같은 학자가 채록<sup>19)</sup>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다이다라봇치는 大太郎(다이타로오)와 法師(호오시)의 합성어에서 왔는데, 이의 축약형이 '다이다라봇치'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거인(다이다라봇치<sup>20)</sup>)도 산과 호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여타의 흥미로운 모티프를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원래 이 거인은 나라를 만드는 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창세기에 활약했다는 거대신(巨大神)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섬을 탄생시켰다고 전해진다. 이자나기의 눈에서 태어난 아마테라스와 쓰끼유미, 코에서 태어난 스사노오는 거인신(巨人神)으로 그 다음 세대를 형성한다. 거인신은 거대신보다는 확실히 작지만, 낮은 산 정도의 키를 갖는다. 산정에 걸터앉아 조개를 줍는 다이다라봇치는 거인신과

18) 巨女の 특성 \* 大衣 - 옷감이 신에 대한 제물, 명주 100동에서 1동 부족 모티프 \* 大食 - 소천국, 남국성(또는 케네깃도)의 엄청난 식성 \* 大根 - 배가 고파 여근으로 불고기 잡기 \* 배설 - 수수범벅을 먹고 大便을 보니 굶망상오름, 오줌발과 우도 \* 거구 - 한 발은 가파도, 한 발은 성산일출봉에 걸치고 빨래를 함.

19) 柳田國男(1927), 『ダイダラボッチの足跡』, 中央公論社.

20) 다이다라봇치는 다이다라보오, 데이다라봇치, 다이란보오, 데이란보오, 다이라보오, 다다보오 등으로 불린다. 이에 대한 명칭은 여러 지역과 문헌에 따라 다르다. '다이다라보오'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村上健司 編著(2005), 『日本妖怪大事典』 角川書店, 195-196쪽. 이것들은 東日本에 보편적인 것이고 西日本에서는 弥三郎, みそ五郎, 大人 등으로 불리고, '一目連'(의 눈 거인)이기도 하고 제철(製鐵)과 연관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깨비와도 비슷한 형상이라 하겠다.

동급의 거인(巨人)이다. 거인 다음에는 사람 크기와 같은(等身大) 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황실의 조상이 된 니니기노미코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sup>21)</sup>

거대신(巨大神)－거인신(巨人神)－거인(巨人)－사람 크기와 같은(等身大) 영웅

중국의 반고(盤古)와 비슷한 창세신이 활약하다가 인간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신이 등장하고, 이어서 산과 호수와 같은 지형을 형성하는 거인전설이 이어지고, 다음에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신이 등장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계기적 설명이다. 인간의 삶이 변화함에 따라, 그리고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신격의 모습도 서서히 변모하는 양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예라 하겠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를 통해 본다면 <초감제>의 창세기가 있고 이어서 천지왕과 대별왕·소별왕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인간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신격이다. 그 다음으로 운명과 생사의 신이 이어지고, 집과 마을을 관장하는 신이 등장한다. 다음 세대를 잇는 부류는 사람 크기와 같은(等身大)의 신인데,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과 퀘네깃도와 같은 장수형 신이라 하겠다. 소와 돼지를 온마리로 먹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영웅이 등장한다. 제주에 있어 설문대할망은 어떤 반열의 신이었을까. 제주의 국토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창세신의 의미도 있는 듯하고, 지형을 형성하는 거인신 혹은 거인의 의미도 내포된 듯하다. 이런 설문대할망의 위상을 일본 거인신화와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보

21) 武光誠(2011), 『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くものけと神道』, 河出書房新社, 25-26쪽.

고자 한다.

설화 1-1) 잘 알려진 것으로는 우선 설문대할망이 앞치마에 흙을 퍼담아 나르다가 구멍이 뚫어진 곳에서 흙이 새어나와 그것들이 360여 개의 오름이 되었고, 마지막 흙을 날라다 부은 곳이 한라산이 되었다.

설화 1-2) 한라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은하수를 만질 듯 높이 솟아올라 봉우리를 꺾어 던졌더니 그것이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거나, 빨래를 하려고 한라산 꼭대기에 걸터앉을 때 산꼭대기가 엉덩이를 찢러 화가 난 설문대할망이 꼭대기를 던져 버렸다. 이게 산방산이 되었다.

일본 1-1) 淺間山은 자신보다 큰 여동생 후지산을 질투해 흙을 나누어달라고 했다. 후지산이 양보해서 거인(다이다라봇치)가 자기 앞에 쌓인 흙을 운반해 주었다. 그러나 淺間山은 흙이 부족하다고 화를 내고 저(후지산)을 두드렸다. 그때 밖으로 떨어진 흙이 前掛山이 되었다. 화가 난 淺間山은 마침내 분화되고 말았다.

일본 1-2) 시즈오카시 다이라보 산정에는 길이 150미터의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다이다라봇치가 왼발을 두었던 자취라 한다. 비와코(琵琶湖)에서 후지산에 흙을 운반하는 도중에 남긴 것이라고 한다.<sup>22)</sup>

다이다라봇치가 후지산을 만들기 위해 신주(申州)의 흙을 가져다 쌓았기 때문에 신주가 분지가 되었다는 설화도 위와 비슷한 유형이다. 특히 후지산 주변의 천간산(淺間山)과 비와코와 연관된 설화가 많다. 다이다라봇치가 물이 용출하는 연못을 만들었고, 다리를 걸쳐놓고 쓰쿠바산에 허리를 걸고 긴 담뱃대에 천간산의 불을 붙이면서 잠깐 쉬기도 하였

22)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ダイダラボッチ條. 宮田登(1993), 『諸國の富士と巨人伝説』, 『静岡縣史』資料編24, 齊藤滋与史他編, 静岡縣, 957쪽.

다고 한다. 위의 설화에서 화산이 분화된 사정이 있고 여기서는 그 불에 담뱃불을 붙인 사연이 있어 두 이야기가 계기적이다. 또한 다이다라봇치가 비와코로부터 흙을 너무 파내서 호수가 되었는데, 후지산의 흙을 나르는 도중에 흙덩어리가 떨어져 작은 산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다이다라봇치 설화의 전형적인 것들이라 하겠다.<sup>23)</sup> 설문대할망 설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한라산과 오름 만드는 과정의 이 모티프라 하겠는데, 일본 거인설화에서도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산인 후지산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한라산은 후에도 삼신산의 하나로 꼽히면서 신성시하고 있는데, 일본의 후지산 역시 오랜 역사 과정에서 신성시하는 산이다. 그리고 두 산은 지금까지 신성성을 지닌다. 설문대할망과 다이다라봇치는 국토의 가장 중요한 산을 만든 상징적인 신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성성이 약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신이 화가 나서 던져놓은 것이 산방산과 전괘산(前掛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격화되고 화를 내는 모습 속에 세속화한 신의 흔적이 엿보인다.

설화 2) 설문대할망의 몸이 워낙 커서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발이 제주 북쪽의 관탈섬에 가 닿았다. 관탈섬은 제주 해안에서 21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일본 2) 거인이 있었는데 늘 허리를 굽히고 걸었다. 남해에서 북해에 이르도록 그랬다. 동쪽에서 순행하던 때에 이 땅에 도착했는데 다른 곳은 (하늘이) 낮아서 굽히고 걸었는데, 이 땅은 쪽 펴고 걸을 수 있을 만큼 높았다. 그래서 그곳을 託賀(=高)郡이라 했다.<sup>24)</sup>

23) 安部晃司 他(2006), 『日本の謎と不思議大全 東日本編』, 人文社, 122-123쪽.

24) 託賀略記 託賀郡 右 此當爲上 所以名 託賀者 昔 在 大人 常 勾 行 也 自 南 海 到 北 海 自 東 巡 行 之 時 到 來 此 土 云 他 土 卑 者 常 勾 伏 而 行 之 此 土 高 者 申 而 行 之 高 哉

신이 거구임을 보여주는 설화다. 신이 거구여서 하늘에 키가 닿았는데 그것을 밀어 올렸다는 이야기가 주변 신화에 남아 있다. 오키나와에 살았다는 거인 아만츄가 바로 그 신이다. '천인(天人)'이란 의미다. 그는 태고 적 하늘이 낮아 인간은 개구리처럼 엎드려 살았는데, 아만츄가 인간을 붙잡히 여겨 양손과 양발의 힘을 다해 하늘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 또 어느 때 태양과 달을 장대에 매달아 놀다가 붕이 부러져, 그때부터 태양과 달이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sup>25)</sup> <충승민화집(沖繩民話集)>에는 천지 사이가 좁았을 때 아만츄메가 하늘을 들어 올렸다고 되어 있다. 창세신화의 흔적들이다. 이 거인 아만츄 이야기는 아마미쿄(あまみきょ) 이야기와 뒤섞이게 된다. 아마미쿠가 내려와 보니 영처로 보여 하늘로부터 토석초목(土石草木)을 받아 그것으로 섬을 여럿 만들었다. 아마미쿠는 하늘에 올라가 사람 종자를 받아 갔다.<sup>26)</sup> 거인 아만츄 이야기가 변질되긴 했지만 국토 창조의 맥을 잇고 있으며 인간 창조의 내용도 담고 있다. 허리를 굽히고 걸었다는 거인의 모티프 속에는 하늘을 밀어 올려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세신의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관탈섬에 이르는 40 킬로미터 정도의 큰 키를 가졌다는 것은 국토형성의 신이면서 동시에 창세신적 모티프를 체내에 감추고 있는 이야기라 하겠다.

설화 3) 거구인 할머니가 배가 고파 하르방으로 하여금 짐승물이를 시키고 자신은 음부를 벌리고 있으니, 그 속으로 사슴 열 마리와 멧돼지 일곱 마리가 들어가 그것으로 포식하였다거나, 하르방이

故曰 託賀郡 託賀 此云 高也 申 伸也 其踰跡處 數數成沼。(播磨國風土記, 託賀郡)

25) 谷川健一(1999), 『日本の神々』岩波書店, 87쪽.

26) 伊波普猷, 外間守善 校訂(2000), 『古琉球』, 岩波文庫, 220-222쪽.

우도와 성산 사이에서 고기를 몰고 할망은 음부로 고기를 잡아 먹었다고 한다.

일본 3) 거인이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먹고 버린 것이 큰 패총이 되었다. 몸길이가 40보 정도였고, 폭은 20보 정도였으며, 소변을 보아 뚫린 구멍이 20보 정도였다.<sup>27)</sup>

거구여서 많은 것을 먹는 대식가(大食家)라는 점에서 두 설화는 유사하다. 설문대할망이 음부로 짐승을 잡았다는 이야기에는 좀 더 근원적인 생명성이 감추어져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창조 여신인 무라우자가 두 발로 각각 산을 하나씩 딛고 서서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이 땅을 적시자 그 흙으로 인간을 빚었고, 진흙을 뿌려 새와 동물을 만들었다. 비가 내리면 피할 곳이 없던 새와 동물, 사람들은 모두 무라우자의 음부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고 한다.<sup>28)</sup> 이는 설문대할망과 너무나 유사하다. 설문대할망이 음부로 멧돼지와 사슴을 사냥하고, 우도와 성산 사이에서 음부로 몰고 고기를 잡는 이야기도 있고, 음부로 동물이 피신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모티프는 단순하게 대식(大食)의 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창조의 여신이 지니는 생명의 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일본 국토를 낳은 대지모신 이자나미는 제주의 지형을 만든 설문대할망과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할망을 대지모신이라 상정할 수 있다. 이자나미는 화신(火神)을 낳다가 죽었고, 그녀의 음부는 閨(くら) 라는 산신

27) 平津驛家西一二里 有岡 名曰 大櫛 上古有人 體極長大 身居丘壘之上 手摻海濱之蜃 大蛤也 其所食貝 積聚成岡 時人 取大朽之義 今謂大櫛之岡 其踐跡 長卅余步 廣廿余步 尿穴徑可廿余步計。(常陸國風土記, 香島郡/那賀郡) 조개껍데기가 쌓인 언덕은 大串貝塚으로 현재 남아 있다. 水戶市の 사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거대한 다이다라봇치 상을 만들어 세워 놓았다(武光誠(2011), 『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ものけ>と神道』, 24쪽).

28) 김선자(2009),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388쪽.

이 된다. 한국의 마고신이 대부분 산신으로 좌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고대인은 여성의 음부를 중히 여겼다. 대화(大和) 삼산(三山) 중에 畝傍山(うねび) 산에는 ‘음부의 신(ほと神)’이 있다고 하는데, 성산(聖山)은 대체로 여산(女山)이다. 태양이 지중(地中)·해중(海中)의 동굴에서 나와 동굴로 돌아간다고 고대인이 사소한 것을 보면 성산(聖山)의 음(陰)은 위대한 동굴로서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sup>29)</sup> 대화 삼산의 으뜸인 향구산(香具山)도 태양이 들어간 곳, 태양신을 제사했던 곳(冬至祭)으로 동굴 모티프가 개입되어 있고, 여성성과 관련된다.<sup>30)</sup> 특히 아메노우즈메노미코토(天鈿女命)가 아마테라스가 은거한 동굴 앞에서 음부를 드러내고 춤추는 장면과 연관시킨다면, 여신은 태양신의 에너지 재생을 돕는 여성성의 상징이라 인정할 만하다. 고대인에게 음부는 신성한 단어였다.

설화 4-1) 수수뱀뱃을 먹고 大便을 보니 성산 근처의 곳망상오름이 되고, 오줌발로 성산과 우도를 갈라놓았다.

설화 4-2) 한라산에서 오줌을 누려고 앉았을 때 포수에게 쫓기던 사슴이 할머니의 큰 성기를 굴로 착각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간지러워 소변을 보니 그것으로 인해 냇물(장강수)이 생겼다

일본 4) 소변을 보려고 飯野山(香川縣)에 발을 올렸을 때 산정 부근에 족적이 찍혔다. 그리고 그 소변으로 생긴 것이 大東川이라 한다.

엄청난 배설을 한다는 것은 설문대할망과 다이다라봇치가 거구였다

29) 中西進(2007), 『日本神話の世界』(著作集 3卷), 四季社, 32-35쪽.

30) 대부분의 민속학자들은 아마테라스 女神은 원래 태양신을 모시던 무녀(히루메, 日の女)가 신격화되었다고 추정한다(박규태, 일본의 여신과 여성신앙, 『동아시아 여성 신화와 여성 정체성』, 210쪽). 그래야 동굴의 의미와 아마테라스의 여성성이 잘 조응될 수 있다.

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거인이 소변을 보아 냇물이 생겨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할망의 오줌발로 우도가 갈라져 나갔다는 이야기 속에는 설문대할망에 의해 섬이 생겨났다는, 국토생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리고 위의 설화 3)에서 보았듯이 음부와 오줌발 모티프에는 창조 여신의 생명력이 내장되어 있다. 육지에서 모내기를 할 때 아침 일찍, 그 마을에서 이들을 가장 많이 낳은 여성이 눈에 오줌을 누어 준다. 여성의 생생력이 눈에 전이되길 바라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여성의 오줌은 이후에도 생명력의 상징이 되었다.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흙을 퍼 나르다가 구멍 난 앞치마에서 샌 흙이 오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배설물이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거대한 배설이 국토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도와 굿망상오름 이야기는 단순한 지명 전설이기 이전에 국토 생성의 신화가 화석화한 흔적으로 보인다. <출운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에는 다이다라봇치가 소국을 모아 이즈모국(出雲國)을 형성했다는 국토 당기기(國引き) 신화가 등장한다. 이는 지형 형성 설화가 국조설화(國造說話)로 변형된 것이다. 거인의 이야기는 국토 형성에서 지형 혹은 지명 형성으로 바뀌고, 이어 국조설화로까지 변형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설화 5) 한라산에 걸터앉아 한쪽 발을 관탈섬에 놓고 다른 한쪽 발은 지귀도에 짚고 성산일출봉을 빨래 구덕으로, 우도를 빨래판으로 삼아 서답을 빨았다.

일본 5-1) 榛名山에 걸터앉아 利根川에서 정강이를 씻었다.

일본 5-2) 羽黒山에 걸터앉아 鬼怒川에서 발을 씻었다.<sup>31)</sup>

31) 安部晃司 他(2006), 『日本の謎と不思議大全 東日本編』, 122쪽.

일본의 다이다라봇치는 큰 산에 기대어 혹은 걸터앉아 쉬었다거나 냇물에 발을 담갔다는 거인의 모습만 비친다. 설문대할망이 용연에 발을 담그면 발목까지 물이 찼다는 이야기도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설화에는 거대한 몸집뿐만 아니라 빨래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할머니 여성신의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의 다이다라봇치는 여성신인지 남성신인지 불명하다. 소변을 보아 그 오줌발로 냇물이 생겨났다는 모티프는 생명을 산출하는 능력이 느껴지고 여성성인 듯한 느낌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다이다라봇치가 조개를 까먹고 버린 대곶패총이 소재한 미토시(水戸市)에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남자다. 일본인의 상상 속에 다이다라봇치는 힘센 남성으로 남아 있는가 보다. 그러나 제주의 거인 설문대할망은 그 여성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두 거인 이야기의 모티프는 매우 유사하지만, 그 함의는 사뭇 다른 점도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다이다라봇치에게는 위대한 할머니 설화가 풍화되어버린 탓이다.

설화 6) 제주와 육지 사이에 다리가 없어 불편해 하자 설문대할망이 속옷을 지어주면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명주 100동에서 한 동이 모자라 속옷을 만들어 바칠 수 없게 되자 다리를 놓다 그만두었다. 조천 앞에 있는 영장메코지가 그것이다.

일본 6) 秋田縣의 横手 분지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매워 농지로 만들고자 했다. 이 공사에 다이다라봇치가 참여하여 큰 손으로 물을 퍼내고 흙을 운반하며 사람들을 도왔으며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 거인은 太平山 三吉神社의 化身이라고 생각했다.<sup>32)</sup>

32) 武光誠(2011), 『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ものけ>と神道』, 27쪽.

두 설화는 모두 국토형성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신과 인간의 교감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이 인간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는 내용이다. 지형 형성과 관련이 있고, 한 쪽은 실패한 흔적이고 다른 한 쪽은 성공한 이야기다. 일본의 거인은 신사에서 제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주의 설문대할망은 신성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표선의 당캐할망당에서 신으로 모셔지는데, 바닷가에 나무를 깔고 모래를 덮어 해변을 만든 공을 인정해서 마을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sup>33)</sup> 나중에 덧보태진 이야기인지, 원래 있던 이야기인지 불명하다. 제주의 위대한 할머니 이야기도 시간이 가면서 풍화되어, 인간의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거대한 몸으로 무엇이든 해내던 여신에서 거대한 몸집을 지녔지만 패배하는 왜소한 능력의 소유자로 전락한다. 육지와 격절되어 있는 제주의 모습 속에 절망적인 설문대할망의 모습이 겹쳐진다. 여신의 종말은 죽음이다. 다음 설화가 그런 종말을 보여 준다.

설화 7) 설문대할망은 오백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을 먹이기 위해 죽을 쑤다가 죽에 빠져 죽었고,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아들들은 모두 죽어 한라산 영실의 오백장군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설화 8)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의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33) 임석재 편(1992),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 203-204쪽. 표선리 당캐할망당 당신화에서는 ‘세명주’라 하기도 하고 ‘설맹대’라 하기도 하는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것이라 했다(표선리원로회(1996), 『표선리향토지』, 154-155쪽). 이 당의 본풀이는 “한라산의 거녀신 ‘설문대할망’ 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여신의 이름 ‘설문대’가 ‘세명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신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했다(문무병(2008),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325쪽). 2009년 제주신당조사에서는 이 당을 ‘표선리 당캐 세명주할망당’이라 했다(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2009),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188쪽).

거대한 여성신의 죽음은 힘에 의해 지배되는 남성신 중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빛어진 패배라고 해석된다. 여성 중심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일본 거인(다이다라봇치) 설화에서 죽는 이야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신이 죽어 식물 및 곡물의 기원이 되었다는 시체화생신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케모치노카미(保食神), 오오케츠히메노카미(大宜都比賣神), 와쿠무스비노카미(稚産靈神)이 있다. 『고사기(古事記)』에 의하면 스사노오에 의해 죽은 오오케츠히메노카미 시체의 머리에서 누에, 양 눈에서 벼씨, 양 귀에서 조, 코에서 쌀, 음부에서 보리, 엉덩이(항문)에서 콩이 생겼다고 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죽은 우케모치노카미 시체의 정수리에서 우마가, 이마에서 조, 눈썹에서 누에, 눈에서 피(稗), 배에서 벼, 음부에서 보리와 콩과 팥이 생겼다고 한다. 와쿠무스비의 머리 위에서는 누에와 뽕나무가 생겼고, 배꼽에서 오곡이 생겼다고 한다.

앞에 든 여와의 이야기도 이에 견줄 만하다. “열 명의 신이 있는데 이름을 여와지장이라 한다. 여와는 이렇게 신으로 변한다.”<sup>34)</sup>에서 화위(化爲)를 근거로 보면, 반고가 죽어서 그의 몸이 해와 달과 산·강·바다·초목이 되었다는 화생(化生)을 떠올리게 한다. 여와가 열 명의 신으로 변한 것은 고대인들의 시체화생의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sup>35)</sup> 서양신화에서도 유사하다. 바빌로니아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서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Tiamat)를 죽이자 티아마트의 시체 조각들이 하늘과 땅과 우주가 되고, 살과 피가 섞인 진흙이 된다. 북유럽의 거인 이미르가 살해되자 그의 육체는 육지로, 혈액은 바다로, 뼈는 산으로, 머리카락은 나무로, 두개골은 하늘로, 뇌수는 우박과 눈이 충만한 구름

34) 有神十人 名曰女媧之腸 化爲神(『山海經』, 大荒西經).

35) 송정화(2009), 『중국여신연구』, 146쪽.

이 된다.

이런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 시체화생은 설문대할망 설화와 그 지향점이 다르다. 할망의 죽음은 자식에 대한 희생이거나, 여성신의 몰락과 관련된 의미를 띤다. 그런 측면에서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티아마트의 죽음과 일부분 상통한다. 마르두크(Marduk)가 티아마트를 살해하고 제우스가 대지의 여신 티폰을 살해하는 형태는 남신의 등장과 관련된다.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남신에 의한 직접적인 살해는 아니지만 여신의 퇴진과 몰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왕이 죽어서 열 명의 자식을 위한다는 측면도 여신의 퇴진과 연결된다.

거인 신격이 호수의 깊이를 재는 모티프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조신이 辰笏湖를 만들었을 때, 호수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가 보았다. 바다에 들어가도 무릎이 젖지 않던 거대한 국조신이 푹푹 빠져서 다리 사이 중요한 물건까지도 젖어버렸다. 화가 난 신은 호수에 풀어져 있던 물고기를 모두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렸다.”<sup>36)</sup> 설문대할망은 자신의 큰 키를 자랑하기 위해 깊은 물마다 들어서서 자기의 키와 비교해 보았다. 제주도 용담동에 있는 용소(龍淵)가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바다의 깊은 물도 무릎에 오지 않았는데 물장오리의 물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일본의 거인 다이다라봇치 설화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산정에 있는 발자국이나 호수는 거인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물장오리도 거인이 발로 밟아 만든 깊은 호수라는 증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 사이 죽음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 그런 변모의 이야기가 여신의 몰락과 패배를

36) 更科原藏, 이경애 역(2000), 『아이누신화』, 14쪽.

보여주는 역사적 퇴적물이 아닐까.

#### IV. 여성신의 변모

1만 년 전 중석기·신석기 초기에서 5,000~6,000년 전의 신석기 중기까지가 모계씨족공동체의 번영기에 해당한다. 5,000~4,000년 전에 이르면 모계공동체는 점차 소멸·해체되고 부계씨족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sup>37)</sup> 앞 시대가 여성 영웅시대였다면 뒷시대는 남성 영웅시대라 하겠다. 고대 남성영웅은 괴물과 싸운다든지 지하세계를 방문한다든지 여신과 사랑을 나눈다든지 하는 영웅이나 사면의 전형적인 업적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나라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건국신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에서 여성영웅의 이야기는 미미한 편이다. 고대국가가 건설되면서 그 이전의 여성영웅과 관련된 전승은 파괴되는 것이 일반이었고, 남성영웅의 이야기에 여성영웅의 이야기가 편입되어 신화 주인공의 어머니 신격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나, 수로의 어머니 정경모주나, 혁거세의 어머니 선도성모가 그 대표적 신격이다. 제주 당본풀이에서는 여성영웅이 남성영웅에 부속된다거나 주인공의 어머니 신격으로 남는 것은 흔치 않다. 여성신이 남성신과 대결하여 당당히 이기고 좌절하는

37)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역(2005),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15-18쪽. 여기서 저자는 신화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초기문명시대, 기축시대, 탈기축시대, 대변혁시대로 구분하였다. 나카자와 신이치는 후기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 혁명(1만 년 전)까지의 오랜 변화의 시기를 중석기시대라 하는데, 이 시기에 최초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2003),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17-18쪽). 신화가 창세신화에서 여성영웅과 남성영웅 신화를 거쳐 범인(凡人) 신화로 변화하는 과정은 조동일의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34-35쪽 참조

당본풀이가 많다. 육지의 남성영웅 위주의 건국신화와는 지형도가 다르다. 일반신본풀이에서도 역동적인 여성영웅을 만나게 된다. 자기 복에 먹고 산다고 선언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운명을 개척한 '가문장아기'(삼공본풀이)라거나, 자신이 사랑한 남자를 찾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나라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여 당당히 농업신이 되어 지상세계로 내려오는 '자칭비'(세경본풀이)는 여성영웅의 면모를 강하게 지닌다. 그렇게 남성신에 지배되기 이전의 고대적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세 이념의 지배 하에서는 서서히 변모한다. 여성신은 남성신에 대한 희생적 행동을 통해 그 존재가치가 부각된다. 사라도령과 함께 꽃감관을 살려 떠나다가 출산이 임박하자 남편만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자현장자의 집에 의탁하여 온갖 시련을 견뎌내는 '원강암이'(이공본풀이)는 주체적인 여성영웅이기보다는 남성신에 부속된 인물이다. 이처럼 여성영웅시대가 남성영웅시대로 이행해 간다.<sup>38)</sup> 초공본풀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어머니 자지명왕아기씨라고도 하고 아들 삼형제라고도 한다. 육지의 당금애기를 염두에 두고 비교한다면 어머니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고, 삼산에 좌정한 삼불제석을 염두에 두고 비교한다면 젓부기 삼형제라 할 수 있다. 아마 어머니 여성신에서 서서히 남성신으로 그 주도적 지위가 이행해 간 것이라 보면 좋다.

설문대할망의 성격 변화도 바로 이런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가 가미된 때문이다. 거대한 몸으로 국토를 형성시켰고, 당당한 음부로 엄청난 생식력을 보인 할망이 어느 날 초라하게 죽게 된다. 아이들을 위해 자애롭고 희생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김선자 교수는 중국의

38)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 고대 중세적 특성과 변모」, 『탐라문화』3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여와 신화를 예로 들어 여성성의 쇠퇴와 교체를 설명하고 있다. 여와는 잘 알다시피 천지와 인류 창조의 여신인데, 그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힘이 해체되고 남신 복희의 아내로 자리매김하면서 부속적·종속적 존재가 되었다. 여성신의 위대함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역할로 변모된 것이다.<sup>39)</sup> 설문대할망도 비극적 희생을 감수하는 생육신(生育神)으로서의 성격으로 변모한다. 중세 질서는 이렇게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고대로부터 전해 오는 신화 속 여신들도 중세적 남성 중심 질서에 편입되고 말았다.

복희와 여와가 교미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상반신은 사람의 형태이고 하반신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중국 사천성 중경(重慶) 사평패(沙坪壩)에서 발견된 석각의 모습에서 복희와 교미함으로써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배우자로 전락한 여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sup>40)</sup> 한다. 그러나 반인반수의 모습에서 아직도 원시적인 여와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후 여와는 남신 복희와 대등한 정도였다가 서서히 부속적인 인물로 변한다. 중국 신화에서 그런 굴절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애초 서왕모는 호랑이 이빨에 표범 꼬리를 한 무시무시한 모습이였다. 반인반수의 서왕모도 시대를 내려가면서 남신 주목왕(周穆王)의 배우자로 변모하고, 사랑에 빠지고 주목왕을 그리워하는 감성의 화신으로, 부드러운 배우자로 묘사되고 있다.

39) 김선자(2010), 「중국의 여신과 여신신앙」, 『동아시아 여성신화와 여성 정체성』, 161-162쪽. 그는 허난성 일대에서 채집된 내용을 소개하는데, “신발도 신지 않았네. 갈대옷 하나 겨우 걸치고 얼굴은 눈물에 젖었네. 온 마음을 다해 세상을 고치네”에서 보듯이 인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면서 보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죽게 되는 여위를 볼 수 있다. 독립적인 권위의 상징인 여와가 “비극적인 희생 스토리의 주인공”(178 쪽)으로 등장한다.

40) 李福清(1988), 人類始祖伏羲女媧的肖像描繪, 馬昌義 編, 中國神話古事論集, 中國民間文藝出版社, 28쪽.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는 세계에서 여와와 서왕모는 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 세계는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동물이 인간으로 변할 수도 있던 시대의 반영이다.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던 신명(神明)의 시대는 가고, 인간과 동물이 엄격히 구분되는 남성 중심의 문명의 시대가 오게 된다. 이제 여성신은 배우자 신으로, 모성을 지닌 어머니 신으로 변모한다.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신화는 변모를 거듭한다.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위대한 여신들은 우주로부터 처음으로 인간세계를 창조한 후, 서서히 남성신에 밀려 산신으로 인식되고 식물과 동물과 정령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남게 된다.<sup>41)</sup> 육지의 거대 여신들도 마고(麻姑)라는 이름을 얻은 후 산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마귀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창조신으로서의 이미지는 퇴색되어 가는 쪽으로 변모를 겪었다.

중국의 발(魃)은 황제의 딸인데 치우가 쳐들어와 폭풍우로 공격하자 발을 내려보내 비를 그치게 하고 치우를 죽였다. 그런 발은 지상에 남아 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한발(旱魃)의 신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다. 신성(神性) 여신이 악귀처럼 여겨지는 이 변형도 역시 “사회가 가부장제로 진입함에 따른 변화였으며, 이제 신화의 중심은 어머니 신이 아닌 아버지 신으로 옮겨가게 되었다.”<sup>42)</sup> 중국 신화에서도 여성 영웅시대에서 남성 영웅시대로의 전환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거대한 몸집과 거대한 식성과 힘을 상징하는 설문대할망의 이미지는 이제 다른 남성신들이 계승하게 된다. 사슴 10마리와 멧돼지 7마리를 먹거나, 물고기를 몰아 음부에 들어간 엄청난 물고기를 포식하였다는 설문대할망의 대식성(大食性)은 소로소천국과 케네깃도로 이어진다. 점

41) 野村伸一 編(2004), 『東アジアの女神信仰と女性生活』, 9쪽.

42) 송정화(2007), 『중국여신연구』, 212-214쪽.

심으로 소 두 마리를 잡아먹는 소천국과, 매 끼니 온 마리로 소나 돼지 한 마리씩 먹는 케네깃도의 식성은 바로 영웅성의 근거인데 그 힘의 주체가 여신에서 남신으로 바뀌었다. 여신은 산속으로 내몰렸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여신 중심의 사회가 끝나고 남신 중심의 사회가 온 것이다. 씨족이 공동체로 참여하는 농경 위주의 모계중심사회에서, 약탈과 전쟁을 통해 거대한 부족국가가 탄생하고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의 부계중심사회로 이행해 간 것이다. 고대국가 시기 여신은 남신의 부속적이고 종속적인 위치로 내려앉아, 남신의 ‘아내’ 역할 혹은 영웅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중세 유교이념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자애롭고 희생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설문대할망 여신도 자식들을 위한 비극적 희생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백 아들을 위해 죽을 쑤다가 죽 술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자료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황을 자세히 논급한 논문을 보면, 500 아들을 위해 죽을 쑤다가 죽 술에 빠져죽은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갑자기 설문대할망으로 바뀌었다는 논증이다.<sup>43)</sup>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거녀 설화와 오백 아들이 바위가 되었다는 화석 설화가 인위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이런 반론은 몇 년째 팽배해 왔다. 사실 우리는 설화를 비롯한 자료의 조작이라는 측면을 심각히 고민할 때가 왔다. 월출산 아래 도선국사와 관련된 설화가 갑자기

43) 현승환(2012),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 『영주어문』24집, 영주어문학회, 100-101쪽. 1958년 안덕면 화순리에서 진성기 선생에 의해 채록된 자료인데, 1964년 출판된 『남국의 설화』(박문출판사)에 갑자기 설문대할망이 오백 아들의 어머니로 등장하고 이런 관행이 다음 『남국의 전설』(개정판, 일지사, 1968), 『남국의 전설』(증보판, 학문사, 1978)에 계속되어 착시현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왕인박사의 설화로 바뀌고 증거물도 모두 왕인의 것으로 바뀌어, ‘도선의 수행굴’이 ‘왕인의 수행굴’이 되었다. 일본에 유교경전 등 문물을 전해 주었다는 근거를 내세워, 민족적 자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적으로 조작에 나선 바 있다. 더구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왕인 이야기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이런 근대적 기억의 조작을 염두에 둔다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급속한 변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두고, 한라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설문대할망’과 한라산 영실 기암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오백장군 설화와 설문대할망 설화가 뒤섞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왜곡된 자료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자료의 왜곡 여부가 아니라 왜곡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내용이 이후도 스토리텔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수용되고 있는 사실”<sup>44)</sup>이라고 했다.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현상 그 자체를 주시하는 태도다. 이런 현상에 대해 ‘거너-거대 바위’의 결합양상을 주목하고, 두 가지 전설 사이에 모종의 강력한 친화력이 개제하는 것<sup>45)</sup>은 아닌지 검토해 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전의 ‘다시 쓰기’의 생생한 사례를 들고 “전설의 ‘다시 쓰기’-융합·변경-는 그 전설이 현재도 살아 숨 쉬게 하는 활명수가 될 수 있다.”<sup>46)</sup>고 했다.

거너 설화와 화석 설화가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둘 사이의 친화력에 의해 스토리텔링 혹은 다시 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하

44) 정진희(2009),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50-251쪽.

45) 송상일(2012), 「자라나는 전설 <설문대할망의 경우>」, 『설문대할망제 사건기록 자료집』, 제주돌문화공원, 147쪽.

46) 송상일, 앞의 글, 150쪽.

면서, 위작과 재창조의 경계에서 긍정적 결론을 내린 바에 일부분 동의한다. 이 논문도 창조여신의 몰락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거대한 힘을 보여주는 신격에서 자애롭고 부드러운 여신으로 변모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설화의 변이과정을 추적해 온 바, 설문대할망의 비극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은 어쩌면 남성영웅시대 이후에는 여성신화의 전형성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설화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모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런 변모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는 분명히 가늠하여야 할 부분이다. 역으로 설화를 고정된 텍스트로 보아 그 자체가 지닌 역동성을 불신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창세신화였다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고 그것은 전설로 파편화되어 전하고 있다. 그것이 왜 다시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고, 전설의 비극적 주인공에 신성성을 덧입히려 하는지에 대해, 우리 시대의 문화현상과 함께 비교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의 지속과 계승이란 화제가 주어진 이 때,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문제라 하겠다.

## V. 결론

제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전승된 주도적인 신화는 건국신화였다. 창세신화나 인류창조신화, 운명 신화, 풍요기원 신화 등 다양한 신화가 사라지고, 혹은 전설·민담화하여 그 신성성을 잃은 채 전승되었다. 함경도와 일부 지역의 무가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만 제주만큼 풍부하지는 않다. 제주에는 창세신화가 초감제와 천지왕본풀이에서 거듭 불려진다. 창세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설문대할망 설화도 이와 함께 주

목받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국토를 형성한 이야기로 거구의 여신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며, 엄청난 양을 배설하고, 큰 옷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제주도민의 염원을 들어주어 육지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려고 하였다. 실패 여부를 떠나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가 관탈섬에 닿은 거구의 몸집은 위대한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였다.

원시와 고대의 신화가 고대 남성 중심의 신화체계로 재편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화에는 여성 신화가 빈약한 편이다. 무가로 바리데기공주 정도가 널리 전승될 따름이다. 그런데 만 년 전부터 오천 년 전까지 모계 중심사회가 전개될 당시의 신화체계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는 여성 신화가 풍부하다. 원시 고대적 사유체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무조신을 키워 낸 자지명왕아기씨(초공본풀이), 아이의 탄생을 주재하는 삼승할망(삼승할망본풀이), 운명 주재의 가문장아기(삼공본풀이), 풍요 주재의 자청비(세경본풀이) 등은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여성 영웅신화의 주인공이다. 그 여주인공이 있게 한 근저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여신 설문대할망이 있었다.

설문대할망은 거대한 몸으로 국토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거대한 몸으로 하늘을 들어올려 지금의 하늘과 땅의 높이를 마련한 창세신과 대비된다. 단순하게 지형을 형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신화체계를 본다면 천지분리와 국토생성은 모두 창세신화의 반열에 든다고 하겠다. 지형전설처럼 보이는 설화에도 섬과 오름의 창조 모티프가 담겨 있어 원래 설문대할망 설화가 지니고 있었던 창세신화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의 창세신화와 비교하여 설문대할망 설화가 지닌 창세신화적 면모를 찾았다. 중국 여와와 무리우자 여신과 대비를 통해 설문대할망이 하늘과 땅을 바느질하여 창조한 여신과 동격임

을 밝혔다. 거인의 배설물과 편력에 의해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다이다라봇치와 흡사하다. 그래서 일본의 다이다라봇치라는 거인설화와 대비를 통해 거인 모티프에 담긴 창세신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런 창세신이 역사적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모하는 과정도 살폈다. 첫째, 여성 중심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여성영웅은 사라지거나 죽고 남성영웅이 등장하는 현상을 찾았다. 둘째, 여성 창세신이 남성 배우자를 만나고 남성신의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고 이어서 아이를 낳는 여성신의 면모가 드러난다. 독립적인 여성신에서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쪽으로 변모하였다. 셋째, 거대신(巨大神)이 거인신으로 바뀌고 거인으로 바뀐 후 인간 크기와 비슷한 신으로 점점 왜소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야생적이고 반인반수(伴人半獸)의 신이 점차 부드럽고 자애로운 여성으로 변모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무한경쟁과 탐욕과 전쟁으로 얼룩진 현대에 신화를 돌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신화는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물질로 더럽혀진 우리를 순결한 정신의 세계로 이행하게 해 줄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 만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일깨워주어 맑은 영혼을 갖게 할 것이다. 특히 여성신화를 보게 되면 바느질하듯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 인간세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힘으로 다투는 남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여성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명적 전환시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권태효(1998),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한국  
의 거인설화』, 역락, 2002.)

김선자(2009),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쿠스, 387쪽, 432쪽.

김선자(2010), 「중국의 여신과 여신신앙」, 『동아시아 여성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  
여대출판부, 146쪽.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문무병(2008),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325쪽.

박규태(2010), 「일본의 여신과 여성신앙」, 『동아시아 여성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  
여대출판부, 210쪽.

송상일(2012), 「자라나는 전설 <설문대할망의 경우>」, 『설문대할망제 사진기록 자  
료집』, 제주돌문화공원, 147-150쪽.

송정화(2007), 「중국여신연구」, 민음사, 66쪽.

임석재 편(1992),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 평민사, 203-204쪽

진정희(2009),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29-254쪽.

제주전통문화연구소편(2009),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진성기(1968), 「남국의 전설」(개정판), 일지사.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역(2005),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현승환(2012),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 『영주어문』24집, 영주어문학회, 100-101쪽.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播磨國風土記, 託賀郡  
 山海經, 大荒西經  
 常陸國風土記, 香島郡/那賀郡  
 淮南子, 覽冥訓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ダイダラボッチ條.

更科原藏, 이경애 역(2000), 『아이누신화』, 역락, 12쪽.

谷川健一(1999), 『日本の神々』岩波書店, 87쪽.

宮田登(1993), 『諸國の富士と巨人伝説』, 『静岡縣史』資料編24, 齊藤滋与史他編, 静岡縣, 957쪽.

大林太良 外(1994), 『世界神話事典』, 角川書店, 352-353쪽.

野村伸一 編(2004), 『東アジアの女神信仰と女性生活』, 慶應義塾大學出版會, 7-9쪽.

武光誠(2011), 『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ものけ>と神道』, 河出書房新社, 25-26쪽.

安部晃司 他(2006), 『日本の謎と不思議大全 東日本編』, 人文社, 122-123쪽.

柳田國男(1927), 『ダイダラボッチの足跡』, 中央公論社.

李福清, 人類始祖伏羲女媧的肖像描繪, 馬昌義 編(1988), 中國神話古事論集, 中國民間文藝出版社, 28쪽.

伊波普猷, 外間守善 校訂(2000), 『古琉球』, 岩波文庫, 220-222쪽.

中西進(2007), 『日本神話の世界』(著作集 3卷), 四季社, 32-35쪽.

村上健司 編著(2005), 『日本妖怪大事典』角川書店, 195-196쪽.

## Abstract

Seolmundaehalmang and Myth for women  
 -Comparison with Japan and Chinese giant myth-

Heo, Nam-Choon\*

Seolmundaehalmang was in charge of a duty to form a country of the huge body. She was compared with Creation God who prepared for distance of the Heaven and the Earth. It may be said that all the nature separation and the country generation enter the group line of the Creation myth. Because the creation motif of the mountain and island were piled in the folktale which looked like topography legend, I was able to find a Creation mythical characteristic.

So the article looked for the Creation mythical characteristic of the Seolmundaehalmang folktale in comparison with China and Japanese Creation myth. I compared it with Yeowa(女媧) and Muriuza(姆六甲) goddess, and clarified that was Seolmundaehalmang folktale equal with a Chinese goddess as a creation goddess. The folktale that the topography was settled for by excrement and the journey of the giant looks just like Japanese Daldaravochi(ダイダラボッチ). So I investigated with a Creation divine characteristic included in a giant motif through comparison with the giant folktale called Japanese Daldaravochi.

However, I understood the process when such Creation God changed into by a change of the historic time. While the first, female oriented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society turned into the male oriented society, I looked for the phenomenon that the woman hero was dead that he disappeared, and a male hero appeared. Second, woman Creation God meet a male spouse and come to have a dependent position. In other words, the duty of wife and mother underwent a complete change in emphasized one from independent Goddess. After third, huge God turning into giant God, and having turned into a giant, I was seen in God who resembled human being size by the phenomenon that dwarfness did more and more. Fourth, I was saw the phenomenon that God who was like a wild animal changed into in tender women.

The myth shows a method to return to the paradise which I have forgotten. The myth will carry out us who were polluted with a material to the world of the mind that is purity. The myth lets you realize the world where nature and all things coexist with a human being and will have a clean soul. I will come to realize that it is switch time of Civilization to go into the world of the woman from the world of a man fighting.

#### Key Words

Seolmundaehalmang(설문대할망), giant, Daldaravochi(다이达拉보ッチ), Yeowa(女媧), Muriuza(姆六甲), 500 generals, gluttony, woman nature, Creation, the country formation.

교신 : 허남춘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hnc423@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2. 12. 21.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